손흥민 '토트넘 100호골'로 새해 축포

2015년 입단 후 253경기만에 달성…케인과 13골 합작
EPL 득점 랭킹 단독 2위…토트넘 3-0 승리 리그 '3위'로

손흥민(29)이 '토트넘 100호 골'을 2021년 새해 축포로 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전반 43분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아 2-0을 만드는 골을 넣었다.

2015년 8월에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이 이 팀 유니폼을 입고 253경기 만에 달성한 100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EPL에서 65골,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에서 12골, 리그컵에서 3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4골, UEFA 유로파리그(예선 포함)에서 6골을 넣어 100골을 채웠다.

손흥민은 또 올 시즌 EPL 12호 골을 기록, 득점 랭킹 공동 2위에서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선두 무함마드 살라흐(13골·리버풀)와 격차를 1골로 좁혔다.

이날 토트넘의 3번째 골을 돕기까지 한 손흥민의 올 시즌 공식전 공격포인트 기록은 15골 8도움(EPL 12골 5도움·유로파리그 3골 3도움)이다.

손흥민의 활약 덕에 3-0 승리를 거둔 토트넘은 정규리그 4경기 무승(2무 2패)의 부진을 끊어내고 7위에서 3위(승점 29·8승5무3패)로 '점프'했다.

선두 리버풀(승점 33·골득실 +17),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33·골득실 +9)와 승점 차를 4점 차로 줄였다.

토트넘은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리즈의 상대적으로 허술한 수비를 강한 압박으로 공략했다.

토트넘의 선제골도 리즈의 수비 실수에서 비롯됐다.

리즈 골키퍼 일랑 메슬리에르의 골킥을 토트넘 해리 윙크스가 끊어내고 전방의 스테번 베르흐베인에게 전진 패스했다. 베르흐베인이 페널티지역 안에서 공을 받을 때 리즈 수비수 에즈잔 알리오스키가 발을 거는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케인은 과감하게 골대 한 가운데로 슈팅해 선제골을 뽑았다.

승기를 굳힌 건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후반 43분 오른쪽에서 해리 케인이 넘겨준 침투 패스를 골 지역 오른쪽에서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로써 손흥민과 케인은 1994-1995시즌 블랙번 로버스에서 13골을 함께 만들어낸 앨런 시어러-크리스 서턴과 단일 시즌 최다 골을 합작한 듀오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더불어 손흥민과 케인은 통산 33골을 합작, EPL 역대 최다 합작골(36골) 기록을 보유한 프랭크 램퍼드-디디에 드로그바(첼시)에 3골 차로 다가섰다.

케인은 손흥민의 골을 도와 정규리그 10골 11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후반 5분에는 토비 알데르베이럴트의 쐐기 골 도움까지 올렸다. 오른쪽에서 손흥민이 올린 코너킥을 알데르베이럴트가 가까운 쪽 포스트에서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골대를 갈랐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 맷 도허티가 경고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를 만났지만 막판 실점 없이 3-0 승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김호영 사단' 완성… 광주FC 새 역사 기대해

정성훈 코치

홍성요 코치

이승준 코치

이거성 코치

정성훈 수석·홍성요 필드·이승준 골키퍼·이거성 피지컬 코치 선임

광주FC의 새 역사에 도전할 '김호영 사단'이 구성됐다.

광주는 3일 "김호영 감독을 도와 2021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로 정성훈 수석코치, 홍성요 필드코치, 이승준 골키퍼 코치, 이거성 피지컬 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성훈 수석코치는 1992년 포항에서 데뷔해 유공, 수원을 거쳐 8년간 수비수로 활약했으며 이후 숭실대, 수원 매탄고 등에서 지도자로 역량을 쌓았다.

또 2018년 파주시민축구단(K3리그 BASIC)의 경기도민체전 우승을 이끌었고, 리그 준우승으로 팀을 K3리그 ADVANCE로 승격시키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광주는 정 수석코치의 세밀한 지도력이 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요 코치는 전남, 상무, 부산 등을 거치며 K리그 통산 108경기에 나와 멀티플레이형 수비수로 활약했다.

은퇴 후 세종대(2012~2016)와 FC의정부(2017-2019)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으며, 2019년 FC아브닐(말레이시아 독립구단)과 2020년 양주시민축구단(K3리그)에서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이승준 골키퍼 코치는 전남의 산하 유스팀을 시작으로 수원FC, 부산, 제주 등에서 코치를 역임했다. 그는 또 2013 KFA(대한축구협회) 골키퍼 강사, 2018-2019 여자축구연맹 골키퍼 클리닉 주 강사 등으로도 활약했다.

이거성 피지컬 코치는 아틀레티코 소로카바(브라질 상파울로 주 1부), 임비투바FC(산타카타리나 주 2부) 등 브라질 무대에서 4년간 경력을 쌓았다.

2014년 국내에 복귀해 수원삼성, 수원FC, 전남, 부산에서 선수단의 피지컬과 재활 등을 담당했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새로 선임된 코칭 스태프 모두 실력이 뛰어난 지도자일 뿐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선배이자 형으로서 선수단의 소통 창구를 맡을 적임자"라며 "모든 스태프가 구성된 만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광주축구센터에서 첫 훈련을 하며 2021시즌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김호영호'는 광주에서 담금질을 이어간다.

이어 10일부터 남해·여수로 이어지는 전지훈련에 나서 본격적인 '베스트11' 경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리의 2020 K리그 이야기

프로축구연맹 사진집 발간…팬들 모델로 참가 추억 공유

K리그의 2020시즌이 담긴 사진집 '2020년 나의 K리그 이야기'가 발간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코로나19로 도전의 시즌을 보냈던 2020시즌을 돌아보기 위해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사진집을 제작했다.

연맹은 지난 2016년부터 K리그의 한 시즌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해 팬들과 추억을 공유했다. 지난 시즌에는 팬들이 직접 사진 모델로 참가해 더 특별한 '2020시즌'을 장식했다.

코로나19여파로 대부분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 각 구단팬을 선정, 그들의 일상과 축구이야기를 사진집에 실었다.

개막부터 최종전까지 또 우승과 강등 또 승격의 순간 등 올 시즌 그라운드에 펼쳐진 '희로애락'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사진집 표지는 K리그 팬일러스트레이터 '크리그툰'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팬들의 삽화로 장식해 독특한 느낌을 살렸다.

연맹은 이번 사진집 발간을 기념해 이벤트를 통해 팬들에게 사진집을 선물한다.

K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사진집 제작 영상 '2020년 우리의 K리그 이야기'을 감상한 뒤 2020시즌 K리그와 관련된 사연,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로 달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는 6일까지이며, 총 300명을 선정해 사진집을 선물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

PSG 새 사령탑에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1부리그) '거함' 파리생제르맹(PSG)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49·아르헨티나) 전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감독을 선임했다.

PSG는 2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포체티노 감독이 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된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포체티노 감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다.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체티노 감독은 2019년 11월 19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사령탑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1년 2개월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PSG는 포체티노 감독의 '친정팀'이나 다름없다. 1989년 뉴웰스 올드 보이스(아르헨티나)에서 중앙 수비수로 프로 무대에 뛰어든 포체티노 감독은 에스파뇰(스페인)을 거쳐 2001년 1월 PSG로 이적해 3시즌을 활약하며 95경기에서 6골을 작성했다.

2009년 1월 에스파뇰의 코치를 맡으면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포체티노 감독은 2013년 1월 사우샘프턴(잉글랜드)에서 처음 사령탑을 맡았고, 2014년 5월부터는 토트넘을 이끌었다.

지난해 조제 모리뉴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겨주기까지 토트넘에서만 5년을 보내면서 159승 62무 72패(승률 54.3%)를 기록하며 '명장'으로 이름값을 높였다. /연합뉴스